

The Call of Christ the Eternal King
Entering the 2nd Week
Or The King is Calling Be Sure to Pick Up
영원한 왕 그리스도의 부르심
둘째 주간으로 들어감
또는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SLIDE ONE: Often when we want to know about a great person, such as Plato or Einstein or Roosevelt we go to a book written about that person. While those endeavors can give us awareness and knowledge of that person and their thoughts and ideas, they give us that awareness via the lens of the author. There is another way to learn about a great person by reading their works or speaking with them directly. The Spiritual Exercises are that kind of journey. They are meant to be a one-on-one experience of God speaking to us directly via scripture, meditation, and contemplation rather than reading a book by St. Ignatius that tells us about how to experience God.

슬라이드 1: 플라톤이나 아인슈타인 또는 루즈벨트와 같은 위인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쓰여진 책을 읽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작가의 눈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위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읽거나 그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영신수련은 바로 이와 같은 여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님을 경험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냐시오 성인이 쓴 책을 읽는 것 보다 성경말씀, 묵상 그리고 관상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일대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LIDE TWO: We began this journey in the Preparation Days; we experienced God's unconditional, ever-present love for us. We experience Him continually creating us throughout our lives. As we became more aware of His love, we began to see that we sometimes fall short of where God calls us in that relationship. Sin became apparent to us, and that revelation became an invitation to enter the experience of the grace of the 1st Week.

슬라이드 2: 우리는 준비 기간에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무조건적이고 항상 함께하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느끼게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때때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명백해졌고, 그 명백하게 드러난 죄는 첫째 주의 은총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This journey begins with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We are created from lov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And all of creation is a gift to us to serve us in that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Each of us is an image and likeness of God as is all of creation. How blessed are we!

이 여정은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와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위해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형상과 하느님의 품성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지요!

In Week One we have a chance to sit with God and allow Him to show us the sin of the Angels, Adam and Eve's sin, and the sin of the world. He sat with us as we reviewed our own sin and our part in the sin of the world. Sitting with God in this time gave us a different view. We were able to look at sin through the eyes of God and experience His mercy and forgiveness. We felt it in our hearts. We became aware that sometimes there are obstacles within our full relationship with God. This experience can create in us an even deeper awareness that God created us in love and that He desires to be loved by us. So, we ask for the grace to become indifferent to the choices that confront us so that our desire is to want those things that deepen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His presence in us.

첫째 주에 우리는 천사의 죄, 아담과 이브의 죄, 그리고 세상의 죄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마음을 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속에 있는 우리의 몫을 되돌아보는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무셨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한 이 시간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느님의 눈을 통해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이를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하느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때로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한 우리안에 그분의 현존이 더 깊어지는 것이 되도록 우리 앞에 있는 선택에 대해 초연해지는 은총을 청합니다.

The bridge to what is to come in the exercises is a set of the 3 questions that are posed through the 1st Week:

1. What have I done for Christ?
2. What am I doing for Christ?
3. What WILL I do for Christ?

The 1st and 2nd questions are relatively easy to answer.

The 3rd question is a heartfelt desire, an exclamation from the soul. It is a desire to be in tune with God. Knowing God's mercy and forgiveness enables the zeal and the desire we feel to serve. We have noticed that the retreat to this point has begun to rearrange our thinking and our doing. We are seeing our lives re-ordered toward God and His desires for us and the world and our part in the world. Change has begun.

So, What WILL I do for God?

첫째 주에 답하고자 했던 3 가지 질문들은 영신수련의 다음 과정들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될것입니다.

1.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나?
2.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있나?
3.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은 비교적 대답하기 쉽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진심어린 갈망이며 영혼의 외침입니다. 이 질문은 하느님과 호흡을 맞추고자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롭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신다는 것을 알게되면 그분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피정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향해, 하느님께서 우리와 세상에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그리고 세상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향해 재정리되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SLIDE THREE: This is the beginning of a new identity. We are not content to just be forgiven. We want to respond, a response that is like fire burning in us. It stirs a desire to want to know God more intimately and in that knowing to discern by God's revelation our unique way of loving. The change we are asking for is a subtler more nuanced way of loving. We are asked to pray for the grace to not be deaf to God's call, to be ready to do His will. It is a grace of listening and patience.

슬라이드 3: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이 뜨겁게 응답하길 원합니다. 이 응답은 하느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자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만의 독특한 사랑의 방식을 식별하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더 세밀하고 미묘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머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실천할 준비가 되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청과 인내의 은총입니다.

And so, we seek someone to guide us, to show us……We seek Jesus as a model and fellow traveler in this world. The Kingdom meditation is to sit and imagine a real person to whom we feel an attraction to follow. Ignatius uses a ruler, a military king……you will find your own image (it might be Mother Theresa, it might be Martin Luther King Jr., it might be one of your parents, be open to the image that God gives you). You sit with what is attractive about that person, what stirs in you as you are present with them; how their being stirs a desire in you to be like them. And then you enjoy the feeling of watching how your desire to be like them stirs a desire to share that feeling with others. George Aschenbrenner, SJ equates this second movement as being rescued from a burning building. We don't just live the rest of our lives in gratitude, we desire to run back into the building and save other lives.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이며 또한 이 세상을 함께 할 동반자로 추구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묵상은 차분하게 앉아서 우리가 따르고 싶고 이끌리는 실제 인물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통치자와 군인 지도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을 이미지를 찾으십시오 (마더 데레사가 될 수도 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될 수도 있으며, 당신의 부모중 한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이미지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무엇이 당신을 끌어당겼는지, 당신안에 무엇을 건드리는지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그들의 존재가 당신이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 일으킵니까. 그리고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이 그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하는 원함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지 바라보며 그 느낌에 머무십시오. George Aschenbrenner 예수회신부는 이 두번 째 움직임을 불타고 있는 건물로 부터 구조되는 것과 동일시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남은 삶을 감사하며 사는데 그치지 않고, 그 불타는 건물안으로 다시 달려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길 원합니다.

So the Kingdom exercise is an expansion of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and the foundation for the rest of the retreat. Where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exercise considers us in relation to God, the Kingdom exercise places us in the presence of

Jesus. We now desire to share with Christ in the redemption of others as well as ourselves. We will travel with Jesus through weeks two, three and four.

그러므로 하느님나라에 대한 수련은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의 연장이며 남은 피정의 토대가 됩니다. 원리와 기초 수련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라면, 하느님나라 수련은 예수님의 현존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자신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함께 여행할 것입니다.

Fr. John A. Hardon, S.J says “The contemplation on the Kingdom of Christ has been called the heart of Ignatian spirituality. It epitomizes two ideals to which we are invited to aspire and, if we follow, will bring us to the pinnacle of perfection in the imitation of Christ.”

1. The first ideal is a willingness to go beyond mediocrity in the service of Christ, the Son of God.
2. The second ideal is a projection of personal love into the world, so that other souls may also “yield a higher than ordinary service to Christ their King.”

John A. Hardon 예수회 신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상은 이냐시오 영성의 심장이라고 불리워진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두가지 전형적인 이상들로, 만일 우리가 따른다면, 그것들은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최상의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 첫 번째 이상은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평범함을 넘어서려는 의지입니다.
2. 두 번째 이상은 개인적인 사랑을 세상안으로 투사하여 다른 영혼들도 “그들의 왕인 그리스도를 위해 평범한 봉사보다 더 높은 것을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The first point is our personal desire to live our lives more fully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This is what Ignatius calls the Magis, The more. What more is God asking of me? What more do I desire to do for God?

The second flows from the first. As we follow Jesus and allow God to help us live our lives more fully, we desire to spill that out into the world so that others may have that same experience of God.

첫 번째 요점은 더 충실하게 하느님과 관계를 갖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 개인의 열망입니다. 이것이 이냐시오가 마지스(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하느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더 갈망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하느님께서 우리가 삶을 더 충실히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세상안에 퍼뜨려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에 대해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Christ is revealing His mission, which can be summarized as:

- Sharing the love and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everyone
- A call for helpers that will labor with Him to build His Kingdom
- A desire for us to be willing to share in the suffering and pain as well as share in the glory

This call is unique to each of us. It is a call that is designed specifically with our gifts in mind. It is a call that will be asked of no one else.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당신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모두와 함께 나눕니다.
- 당신과 함께 그의 왕국을 건설 할 조력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 영광뿐만아니라 고통과 아픔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각자에게 다른 독특한 것으로 우리가 안에 갖고 있는 재능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된 부르심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요구되지 않을 부르심인 것입니다.

SLIDE FOUR: The 2nd Week is a school of discipleship, and discipleship is usually a preparation for something else, something more. It leads us to apostleship, which is someone who is sent by a sender, and in this case the sender is Jesus.

슬라이드 4: 둘째 주는 제자 학교이며 제자됨은 보통 그 이상의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도직, 파견하는 이에 의해 파견되는 사람으로 이끕니다. 이 경우에 파견하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So, the exercise leaves us with What OUGHT I do for God?

1. How will I respond to Jesus, my Savior?

2. He has given and shared with me all that he is capable of doing for me. By dying on the cross and sending the Spirit He is constantly saving me and accompanying me.
3. What should my response be to such a benefactor? ...
4. How will I respond to Jesus' vision of establishing a new kind of human community where all people celebrate the effects of God's love with one another on planet earth. ...
5. How will I respond to Jesus' desire for my help in inviting all people into God's house?
6. He gives all He can to me, what return shall I make to him?

그래서 이 수련은 하느님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1. 나는 어떻게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 응답할 것인가?
2.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것을 나에게 주시고 함께 나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며 나와 동반하고 계십니다.
3. 그러한 은인에게 해야 할 나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4. 지구상에 전 인류가 서로 하느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을 모두 함께 기뻐하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5.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집으로 초대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6. 하느님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무엇을 되돌려 드려야 합니까?

At this point we have made the decision to accept Jesus as our King and Lord. “We are no longer living for ourselves but for Jesus” (cf. 2 Cor. 5:15). Now we are being called to go deeper with this decision. It might be helpful to consider the importance of holy indifference, as we learned in the First Week, so that we may give a more loving response to the King’s call to serve Him in spite of accompanying hardships. We continue to identify disordered attachments so that our response to God is what God desires from us. It might also be helpful to be mindful of the many ways Jesus has blessed us as evidenced during the First Week of the Exercises. Recognizing these points, praying for a deepening of generosity would permit us to respond to the King with magnanimity marked with humble gratitude.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며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토 2 서 5:15). 지금 우리는 이 결심을 더 굳세게 실천 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이 따르더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욱 애정이 담긴 응답을 하도록, 첫째 주에 알게 되었던 거룩한 불편심을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에 응답할 수 있도록 무질서한 애착에 대해 지속적인 분별을 해야합니다. 첫째 주간의 수련에서 증명된 것 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던 다양한 방법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점들을 인식하고, 우리가 더 관대하게 되도록 기도하면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이루어진 관대함과 덕을 지니고 하느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An Ignatian Prayer For Generosity</p> <p>Loving God, teach us to be generous. Teach us to serve you as you deserve; to give and not to count the cost, to fight and not to heed the wounds, to toil and not to look for rest, to labour and not to ask for reward, save that of knowing that we are following your desires for us.</p>	<p style="text-align: center;">관대함을 청하는 이냐시오식 기도</p> <p>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저희가 관대해지도록 가르쳐주소서. 당신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저희가 당신께 드리도록 가르쳐 주소서; 주되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싸우되 그 상처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역경과 노역의 삶을 살되 안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애써 노동 하되 저희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외에는 다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게 하소서,</p>
--	---

SLIDE FIVE: The Incarnation or Mary’s response to God’s call is the first meditation of Week Two.

The Incarnation invites us to imagine the Trinity looking down at the world in its turmoil. They see what is happening. They see how the people they created are living. Imagine how they feel. Is it anger, pain, or sorrow? As the Creator they choose to respond out of their deep love for their creatures. They desire to help sort out the mess. They desire to have a deeper, closer relationship with us.

슬라이드 5: 둘째 주간의 첫 묵상 주제는 강생 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

강생은 삼위일체께서 혼란속에 있는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상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삼위일체께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며 그들이 창조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 봅니다. 삼위일체께서 어떻게 느끼는지 상상해보십시오.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화를 내거나, 아픔이나, 슬픔을 느낄까요? 창조주로서 그분들은 창조물에 대해 깊은 애정으로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혼란을 정리하는 것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더 깊고 밀접한 관계를 갖길 원합니다.

They see that we need guidance and help to lead us more toward the Creator; to show us how to have a more loving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y see that there is a need to re-insert their love into the world in a more “real” way.

그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사람들과 더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어 우리가 창조주에 더 가까워 지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랑을 더 “구체적” 방법으로 세상에 다시 넣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Imagine the discussion between the three about how this is to be done and who should be the one to handle it. Imagine Jesus saying, “I want to go. Send Me!” They know the only way to re-insert their love is to be there in person, to walk the earth with their children as an example.

그 삼위가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것이며 누가 그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다시 넣어주는 방법은 사람이 되어 지상으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며 본보기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They watch. They observe everyone to select the right person to provide the home for His entry into the society. They choose Mary; the perfect choice to bring the Word into human form.

그분들은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그분께서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갈 집을 제공할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분들은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이는 말씀이 사람으로 되시도록 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Henry Tanner painted his version of the Annunciation in 1897. ……….

Henry Tanner 는 1897 년에 수태고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SLIDE SIX:



Ignatius invites us to feel Mary's fear, excitement, concern, and worthiness for this calling from God. Imagine her asking herself the question, "What OUGHT I do for God?"

Ignatius wants us to feel what it was like for her in this moment. He wants us to see one person's reaction to the Call of the King. She has no idea what is to come.

.....

슬라이드 6: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리아의 두려움, 흥분, 걱정 그리고 가치를 느껴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하나?"라고 자신에게 묻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냐시오는 이 순간 마리아가 어떠했을지 우리도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는 한 사람이 왕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무슨일이 일어날 지 알지 못했습니다....

SLIDE SEVEN: We now begin our journey into the life of Jesus. The grace we ask for throughout the 2nd Week is to see Him more clearly, love Him more dearly and follow Him more nearly --- the day by day grace.

슬라이드 7: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둘째 주간을 통하여 그분을 더 분명하게 볼 수있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를 수있도록 매일 매일의 은총을 청합니다.

SLIDE EIGHT: We will journey in the Second Week with the life of Christ. We will move from the annunciation to His birth, to his childhood and eventually to his adult public life. You will be invited to contemplate various scripture stories of Jesus's life. You will also be invited to use Imaginative Contemplation...to place yourself in the scenes...to really experience Jesus as friend, as rabbi, as God's son. Imagine the sights, the sounds, the smells and the feel of each scene. Let yourself be there. Sometimes, you might find that God places you in the scene in a role that you did not choose. Live in that role, let God show you what God wants you to experience and feel. The Second Week is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a deep relationship with your friend, Jesus. That relationship with Jesus can only serve to deepen our relationship with God.

슬라이드 8: 우리는 둘째 주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 여행을 할 것입니다. 수태고지에서 시작하여 탄생으로, 어린시절과 성인으로써의 공생활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할 것입니다. 예수의 삶에 대한 다양한 성경말씀을 관상하도록 초대될 것입니다. 또한 상상을 사용하여 관상(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하며 예수님을 친구로, 스승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변 풍경, 소리, 각 장면의 느낌과 냄새를 그려보십시오. 자신을 그곳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때론 하느님께서 장면 안에서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역할을 하도록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길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도록 하십시오. 둘째 주간은 당신의 친구인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어진 관계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SLIDE NINE: Now let's open our discussion to your questions and comments.

슬라이드 9: 이제 여러분의 질문과 코멘트에 대해 이야기 합시다.